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7년 2월호

검색

▶ 웹진 구독신청

CoverStory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Contents

ID Interview

연구/원/소/식



2월 대화의 시간

2월 대화의 시간에는 상조회의
2006년도 운영결과보고를 받
고 올해 새로...

인천/나/들이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정해년 아침, 돼지해라서 그
런가...웬지 풍요로워야 할 것
같고, 참만...



인천시장상인연합회 김성
철회장과의 인터뷰

먼저, 인천시장상인연합회
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지, 간단
한...

시/정/연구



인천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

○ 재래시장의 쇠퇴는 영
세상인의 생...

도/시/동/향



중국의 재래시장
시장은 우리에게 성장의
가장 큰 토...

신/간/소/개



인천지역 한류관광 실태
및 대응정책 방안
통합적 지역관광정책의
관점에서 한류...

I ID인/터/뷰

인천시장상인연합회 김성철회장과의 인터뷰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7년 2월호 ▼

검색

▶ 웹진 구독신청

Q 먼저, 인천시장상인연합회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인천상인연합회는 경쟁적으로 몰려드는 국내외 대규모 유통 자본들의 압박 속에서 약화되고 있는 재래시장 조합들과의 연계를 통한 연합회를 조직하여 재래시장 종사자들의 경쟁력 향상과 제도적 보호, 이익 창출,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4년에 설립되어 현재 총 56개 시장 중 38개시장, 약 6천여 개의 점포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획기적인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재래시장의 실질적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장 및 상점가 상인의 상권 활성화, 공동상품개발과 판로확보, 구매·판매 및 물류에 관한 공동사업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월간소식지인 '상인신문'을 발행하여 전국으로 무료배포하고 있으며, 재래시장상품권판매 및 시장박람회개최(2007년5월예정)등 재래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장상인연합회
김성철회장

Q 전국적으로 푸짐하고 정이 넘치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으신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요?

A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경쟁력강화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래시장 통합 포인트 카드도입을 추진하여 인천지역 시장의 연대를 통한 소비자를 공유하고, 단골고객 확보 및 신규고객을 발굴하여 상인들의 사기를 높여 경쟁력을 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상품권에 대한 상인들의 수수료를 면해줌으로써 상품권에 대한 인식을 좋게 하며, 앞으로는 인터넷쇼핑몰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편하게 사고 품질 좋은 재래시장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Q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고객들과 직접 만나는 상인들의 모습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의 상인들과 지금의 상인들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씀해 주세요.

A 예전의 재래시장 상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고객을 대하는 의식의 부재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합회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마케팅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상인대학을 마련하였고, 현재까지 3개의 시장상인들이 시범교육을 받아 졸업하여 시장상인들의 자생력이 강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고객을 대하는 상인들의 태도가 단골고객 및 매출 증대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인천의 모든 시장상인들이 교육을 받게 되면 웃음꽃이 피는 인천재래시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재래시장을 자주 이용하시는 고객과 앞으로 재래시장을 찾을 예비고객들인 인천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저희 인천상인연합회는 재래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쇼핑의 편의와 만족을 드리기 위해 상품권판매, 공동사업추진과 상인들의 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다 편리한 시설에서 좋은 품질의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하시고 넉넉한 정까지 가져
가실 수 있는 재래시장을 찾아주셔서 재래시장의 경쟁력 향상, 더 나아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7년 2월 호



검색

▶ 웹진 구독신청

연/구/원/소/식

제152회 시의회업무보고



2007년 2월 1일 오전11시

제15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보고가 2007년 2월1일 오전11시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에서 열렸다.2007년도 인천발전연구원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였다.

2월 대화의 시간



2007년 2월 6일 오후4시

2월 대화의시간에는 상조회의 2006년도 운영결과보고를 받고 올해 새로운 가족이 된 직원들 과인사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보고회가 끝난 후, 모두 편한 옷차림으로 갈아입고 근처 볼링장으로 모였습니다. 평소 같고 닦았던 실력을 발휘하며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도록 맘껏 웃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볼링대회의 끝은 여자·남자로 나뉘 각각 1등상과 4등 14등에게 주어지는 행운상 시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2007년 정책과제 착수연구심의회



2007년 2월 13~14일

2007년 2월 13~14일 이틀간 인천발전연구원 2층 세미나실에서는2007년도 상반기 정책연구과제 착수심의회를 추진하였다. 의뢰부서 공무원이 참석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효율적 운영모델연구외 15건의 과제 수행 방향에 관한 논의를 추진하였다.

| 인천/나/들/이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시정연구관실 장순지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7년 2월호 ▼

검색

▶ 웹진 구독신청



정해년 아침, 돼지해라서 그런가...웬지 풍요로워야 할 것 같고, 충만해야 할 것 같은 기분으로 새해를 맞이했다.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은 이런 벅찬 기운을 느끼게 해 준, 일종의 '선물' 같은 답사였다.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송현동 아파트 단지 내 근린공원 안에 위치해 있는 수도국산의 옛이름은 만수산 혹은 소나무가 많아서 송림산이라고 불리웠다. 개항 이후 일본인들이 중구에 살게 되면서 그곳에 살던 조선인들이 수도국산으로 옮겨오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곳은 가난한 사람들의 터전이 되었다. 현재는 아파트 단지와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서 더 이상은 , 고단한 시절, 정겨웠던 수도국산 달동네의 표정은 찾을 수 없게 되었지만 그 시절의 켜켜이 쌓아둔 삶의 기억들을 추억하고자 달동네 터에 박물관을 건립하게 된 것이다.

달동네 박물관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보이는 곳이 '송림 복덕방'이다. 이 곳에서 표를 사고 나면 그때부터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 여행이 시작된다.

뽕이요~

를 외치는 뽕튀기 아저씨의 모습도 만날 수 있고, 뽕하고 터지는 그 소리를 들겠다고 올망졸망 앉아있던 동네 아이들도 연상할 수 있다.

어릴 적 시골 할머니댁 같은 정겨운 풍경도 고스란히 재현되어 있다. 구멍 뚫린 창호지문과 쌓아올린 그득한 보리밥, 아궁이와 장작, 화롯불과 군밤 등...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더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거리거리마다에는 미소가 번지는 표어들과 광고가 붙어있다.



반공방첩 문구부터 농수산부의
일시에 취를 잡자 광고까지...



옥상에 가득한 장독대, 가지런히 널려 있는 빨래들과 생선들이 눈길을 끌고, 동네 앞 구멍가게에는 어린 시절 사먹던 추억의 과자들이며 불량식품들이 기다리고 있다. 재래식 화장실도 냄새가 날 것처럼 실감나게 만들어져 있으며 만화책을 꺼내볼 수도 있다. 순정만화의 입문이라 할 수 있는 김영숙의 '갈채'와 황미나 만화들을 발견하고는 나의 '소녀시대'도 추억할 수 있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직접 그 시절로 돌아가볼 수 있는 체험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물지게도 지어 볼 수 있고 연탄불을 갈아 볼 수도 있으며 추억의 교복을 입어볼 수도 있다. 방문객들 저마다 교복을 입어보며 제각기 불량스런 여고생을 연출해보기도 했다. 또 못난이 삼형제 인형이나 일일이 오려 인형놀이를 했던 종이인형들, 불량식품을 살 수 있는 기념품 가게도 있다. 특히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 모형들, 은을 솜틀집 주인, 뽕튀기 아저씨, 대지 이발관 주인, 연탄가게 주인은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어서 더욱이 친근하다.

그 시절 게딱지 초가들과 울통불통 비탈길은 황토빛 흙더미 속에 묻혀있지만 우리네 애환이 서린 기억의 편린들은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곳곳에서 보듬을 수 있다.

하늘 아래 달과 맞닿은 곳, 하루살이가 녹록치 않던 고단한 시절, 달빛 가장 밝게 비추는 곳에서 더 환한 꿈을 꾸었을 그들의 삶이 그리워진다면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을 찾아가보자. 그곳에 '일번가의 기적'같은 삶이 오롯이 살아 숨쉬고 있을 것이다

시/정/연구

인천 재래시장의 활성화방안

도시경영연구실 김번욱 연구위원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7년 2월호

검색

▶ 웹진 구독신청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재래시장의 쇠퇴는 영세상인의 생활기반은 물론 지역내 산업간 균형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문화·복지 등 생활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보호·활성화가 필요.
- 유통시장 개방 후 대형 유통점, 무점포영업 등 새로운 업태의 급속한 증가 등 급변하는 유통 구조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재래시장 육성 필요.
- 본 연구에서는 현장조사와 관련 자료를 통하여 인천 재래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 재래시장 활성화 사례의 시사점을 통하여 인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제도출과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인천 재래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

■ 인천 재래시장의 현황 개요

- 인천지역 재래시장의 구·군별 분포를 보면, 많은 재래시장이 구도심인 남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서구나 계양구에는 적게 분포됨.
- 본 연구는 시설현대화사업이 완료되었거나, 계획 중인 시장으로서, 중구의 신포시장, 동구의 현대시장, 남구의 용현·석바위·신기시장, 연수구의 송도역전 시장, 남동구의 구월·모래내 시장, 부평구의 진흥·십정종합시장, 계양구의 계산시장, 서구의 가좌 시장 등 12개 시장을 대상으로 분석.
- 우선 등록여부를 기준으로 할 때 등록시장은 용현·진흥종합·십정시장 3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무등록시장임에 주의하여야 함. 그러나, 무등록 시장 중에서도 모래내시장을 제외한 모든 시장은 인정시장임.
- 한편 소유를 기준으로 볼 때는 법인시장인 송도역전시장과 진흥종합시장을 제외하면 모두 개인시장임.
- 시장규모별 특징별로 살펴보면, 골목형시장인 석바위·신기·송도역전시장을 제외하면, 모두 지역상권의 중심시장을 알 수 있음.

■ 인천 재래시장의 문제점

- 인천 재래시장의 문제점으로는 우선 우리나라 전체 재래시장에 해당될 수 있는 외부적 요인으로 소매 시장의 양극화 현상, 유통산업의 급격한 변화,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등이 지적됨.
- 한편 인천 재래시장의 내부적 요인으로는 규모의 영세성, 시설 노후화 고객편의시설 부족, 경영·관리능력 취약, 유통정보화의 미흡 등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인천 재래시장의 활성화방안(S/W측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설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 내부 경영능력 확충,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수립”이라는 기본 목표를 설정한바, 이를 위해 S/W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5단계별 추진방침이 요구됨.

■ 추진 방침에 따른 5단계별 세부 추진계획

- 1단계 재래시장 상인조직단일화를 위해서는 재래시장 내부의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상인조직과의 협조창구 일원화, 점포 및 노점상인의 효율적인 관리 및 통제를 위하여 시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이 중요함.
- 2단계 “청결한 재래시장 만들기” 자발적 상인참여 붐 조성을 위해 상인중 재래시장 활성화를 선도할 자율정비 운영위원을 위촉·운영함과 동시에 매월 정기적 “청결한 재래시장 만들기”날을 지정 및 운영하여 시장내 쓰레기처리문제, 통행로 확보문제를 상인회가 주체가 되어 활동함.
- 3단계인 상거래현대화 사업 및 상인교육사업 전개를 위해서는 재래시장 홈페이지 구축사업과 상인 교육사업(특히 친절·경영마인드제고) 실시가 상인의식 제고를 위해서도 중요함.
- 4단계 “재래시장 애용하기”운동의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구청과 시장상인회가 주축이 되어 ‘재래시장 이용의 날’ 지정·운영하고, 시장 슬로건 제정·홍보 등으로 시장이미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 단계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상시장 범위를 확대하여, 인천지역의 재래시장이 외적 요인에서 오는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운영될 수 있는 내외적 여건을 만들어야 함.

시장 상인의 역할 제고

- 추진 조직 내 지도적 역할
- 활성화 전략 기획능력 제고
- 취급 업종의 전문화·특화
- 경영현대화 수준의 향상
- 홍보 마케팅 강화
- 자문 및 지도업무 강화: 중앙정부 지원활용

상기 제시된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인천광역시, 구청의 행정적 지원이 요구됨.

특히 구청은 상인들의 의식개혁 교육 실시(시장경영지원센터에 의뢰 실시), 특히 사업추진 주체자인 상인회와 협조 관련자에 대한 지속적인 합의 도출을 유도해야함.

지역주민의 역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도적 역할은 당사자인 상인들이 담당해야 하며 해당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나, 재래시장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주민 역시 재래시장을 자신들의 전통문화와 정서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협력해야 함.

인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인천광역시, 구의 역할

시/정/연구

경인철도 역세권 도시재생 방안 연구

도시계획·교통연구실 조상운 연구위원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7년 2월호

검색

▶ 웹진 구독신청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경인철도 역세권은 집객력 있는 시설 부족, 주거위주의 토지이용, 지역분단에 따른 동서·남북간 지역격차 심화, 아이덴티티 부족등으로 쇠퇴가 심화되고 있음. 최근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균형발전 및 도시재생이란 개념하에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전략들이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본 연구는 해외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의 주요 기법들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경인철도 역세권의 도시재생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경인철도 개별 역세권(500m, 1km)>

외국의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

- 물리적으로는 도시디자인적 측면과 비물리적으로는 상점가 등의 관리를 중요시 함.
- 도시재생을 위한 다양한 중앙정부의 보조금 제도를 탄력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지방의 특성에 맞게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등 유연한 공적주체를 가지고 있음.
- 도시디자인 및 매니지먼트를 공공과 민간이 파트너십을 이루어 정책을 전개하고 있음.
-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외국의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구 분	관련 제도	국가	특 징
정책	CRM(Centralized Retail Management)	미국	상업기능 활성화에 초점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미국	물리적 환경개선과 매니지
	중심시가지활성화법	일본	먼트 중시
	도시재생특별조치법	일본	각종 규제 완화
재정지원	Challenge Fund	영국	중앙정부차원 적극 지원
	EP(English Partnerships)	영국	
	RDA(Regional Development Agency)	영국	
	중심시가지활성화법	일본	
	도시재생특별조치법	일본	
파트너쉽	TMO(Town Management Organization)	일본	파트너쉽 강조
	TCM(Town Centre Management)	영국	

■ 『물리적 개발방식』 으로부터 『매니지먼트』 로의 전환

경인철도 역세권 도시재생은 상점가의 기능회복을 통한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상점가의 환경정비 뿐만 아니라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방안이 필요함.

국외에서 적용되고 있는 중심시가지 활성화 제도(TCM, TMO, BID 등)의 도입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Management)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 『역세권 도시재생사업 센터』의 설립

지자체, 상인, 개발업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역세권 도시재생사업 센터”를 구성하고, 역세권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 수립(Planning), 사업시(Development), 향후 관리·운영(Management)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타운매니저(Town Manager) 등 인재의 필요

역세권 도시재생에 관한 모든 것을 총괄하며, 책임을 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의사결정자와 조직, 그리고 주민 등 이해당사자간의 조정역할을 담당할 인재가 필요함. 타운매니저는 민간이 자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계획,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이를 민간에게 설명하여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함.

■ 『역세권 도시재생 등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

도시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낙후된 기성시가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주로 주거환경 개선에만 치우쳐 있어 역세권을 활성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 중심시가지 쇠퇴로 인한 공동화 문제를 심

각하게 인식하고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의 정비, 재개발사업 등을 포함하는 물리적

측면과 운영·관리·조직체 구성 등의 비물리적 측면을 일체적으로 고려하는 제도를 제

정할 필요가 있음.

<역세권 도시재생을 위한 도입가능한 제도>

구분	사례	물리적 개발·개선				비물리적 측면			재정지 원	제도 (법률)	파트너쉽
		개발	개선	도시계획 특례	마케팅	사업 지원	테넌트 관리	안전			
통합관리 프로그램	CRM	-	○	-	○	○	○	○	자체	-	상인
	BID	○	○	-	○	○	○	○	특별세 징수	○	상인
	TCM	○	○	-	○	-	○	○	공공지 원	-	공,상, 민

타운센터 매니지먼트											
통합조직 구성	TMO	○	○	○	○	-	○	○	공공지 원	○	공,상, 민

해/외/출/장/리/포/트

중국의 재래시장

동북아·물류연구실 김지선 초빙책임연구원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7년 2월호

검색

▶ 웹진 구독신청



시장은 우리에게 성장의 가장 큰 토대다. 영당이가 빨간 원숭이와 그에 못지않게 불이 빨간 피어로 아저씨가 애증을 주고받으며 약을 팔던 추억의 시장이 도시화의 물결에 밀려 이제는 흔적을 잃어버린 곳. 그곳은 추억과 낭만이 있는 곳을 넘어 생활이 있어서 가장 정직한공간이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장사를 잘하는 민족으로 알려진 중국인들이 사는 곳에도 시장은 있다. 거리시장, 사람이 있는 이상 팔 것이 있다는 중국은 시장이 아닌 곳이 없다할 만큼 모든 삶의 현장이 곧 시장이다.

사회주의국가답게 맞벌이가 보편적인 이곳에서 삶의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시장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아침의 이른 시간 주책이 밀집해있는 곳이라면 아침 찬거리를 팔기위한 상인들의 작은 아침시장(早市)이 열린다. 이들은 중국인들이 아침으로 즐겨먹는 도우지앙(豆浆:두유같은것), 죽(粥), 요우티아오(油条), 훈툰(馄饨), 전병(煎饼), 총화빙(葱花饼), 각종 절인반찬(咸菜)과 차에 절인 계란(茶蛋)등을 팔고 있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신기하게도 아침8시가 되면 언제 장이 섰었냐는 듯 금세 사라져 도로만 남아 있다.



최근 시장 주변으로 새로운 아파트 단지와 거주 지역이 늘어나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공간의 필요성을 느낀 재래식 시장은 단층형의 “따평식(大棚式 - 커다란 천막식)” 건물을 짓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는 고정적인 장소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아침부터 저녁 무렵까지 온종일 영업을 할 수 있는 상설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의 내부는 물건 값을 깎는 사람들, 세일한다고 소리치는 상인들, 조금은 지저분하고 시골벽적인 모습은 우리의 재래시장과 별반 다른 점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남편들이 시장바구니를 들고 장을 보러온 모습은 우리에게 사뭇 낯설기도 하다.

어느 순간부터 대형 할인 마트와 생활용품 판매점에 밀려 그 모습을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어진 우리 재래시장 속의 생활용품코너는 중국의 재래시장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어 반갑다. 또한 중국인이 즐겨 쓰는 향신료인 프란(孜然), 화초나무열매(花椒) 등과 각종양념으로 진열되어있는 부식품코너도 눈에 띄는 재밌거리다.



정육점을 둘러보면 한국과 다르게, 쇠고기와 돼지고기 외에도 양고기를 판매하고 있다. 양고기 역시, 중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육(肉) 고기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특이하게도 육 고기를 냉동·냉장 보관하지 않은 채 상온에서 계절에 관계없이 보관 판매한다.

쇠고기와 양고기는 “칭쩐(清真 - 회교, 이슬람교)”이라고 쓰여진 곳에서 판매하는 고기가 맛있다고 한다. 하지만 칭쩐에서는 “쭈(猪zhu:돼지)”라는 발음을 내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또한 중국 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아 동물 검역 시스템을 도입하여 위생적으로 도살한 “고우로우(狗肉 - 개고기)”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코너도 있으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주의 깊게 보도록 하자.

한국에서 “채소=금값”이라 한다. 그 중에서도 비싸다고 할 수 있는 웰빙채소 파프리카(青圓椒)를 중국에서는 0.5Kg당 500원(한화)정도에 구입할 수 있으니 한국의 주부라면 중국 식재료비 물가에 탄성이 절로 나올 것이다.

중국은 넓은 대륙만큼이나 기후대 또한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45과 81속 248종의 과일이 생산된다. 그중 상용화된 과일로는 45종정도로 한국에서 맛보기 힘든 리쯔(荔枝), 하미과(哈密瓜), 용안(龙眼) 등은 꼭 맛보길 바란다.

시장과 학교주변의 빠질수없는 거리의 간식(街段小吃, 校園美食)로 호박고구마(紅薯), 탕후루(糖葫蘆), 지단관방(雞蛋灌餅), 마라탕(麻辣燙), 샤오롱바오(만두일종:小龍包), 찐빵(饅頭)등도 싸고 맛있는 요깃거리다.

흔히 우리가 떠올리는 중국의 재래시장은 전갈꼬치, 개구리꼬치, 참새꼬치 등 혐오식품을 팔고 상인들과 가격흥정에 열을 올리는 곳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인의 삶속의 재래시장은 우리의 개괄적인 생각과는 달리 우리의 재래시장과 거의 흡사한 사람 사는 냄새가나고 인정이 흐르는 “런칭월(人情味兒:인정미,사랑의 정)”한 그런 곳이다.



현재 북경에서는 150개 지역의 재래식 시장들이 2008년 올림픽을 맞이하여, 대대적인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한다. 먼저, 시장에서 판매하는 채소는 진흙이나 뿌리, 시든 잎 등을 제거한 후에 판매하도록 해야 하며, 각 판매대의 쓰레기통 구비, 화장실과 세면대도 시장 안에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익힌 음식과 두부, 두유 등 콩 제품 그리고 국수, 만두, 빵 등 주식은 별도의 진열대에 진열되어야 한다.

최근, 중국은 각종 질병의 발발과 올림픽 준비, 그리고 경제적 성장 등으로 인해 위생상의 관념이 많이 변화되고 있다. 재래식 시장 역시,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타고 “환구두오타이(換骨奪胎 - 환골탈태)”하고 있다.

지금 중국 북경의 재래시장을 방문하면 旧와 新이 공존하고 있는 양면의 재래시장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신/간/소/개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7년 2월호 ▼

검색

▶ 웹진 구독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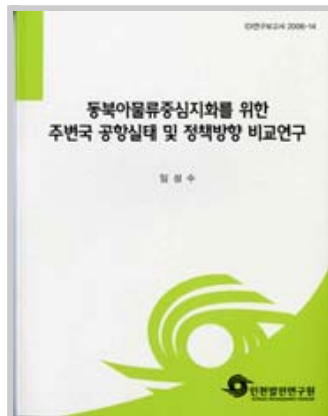
입체도시계획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도시 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기반시설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일정한 공간의 지하 및 공중공간을 사용함으로써 사업비의 절감과 더불어 도심활성화, 도시재생을 도모할 수 있는 입체도시계획제도의 인천시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 보고서. 또한 독일, 일본 등 외국의 입체도시계획의 사례를 조사하여 계획에서부터 관련 법률에 이르기까지 현황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를 통해, 낙후되어 가고 있는 기성 시가지의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 중인 인천시가 이를 활용하여 살기 좋고 편안한 환경을 창출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동북아물류중심지화를 위한 주변국 공항실태 및 정책방향 비교연구



인천발전연구원

주변국 대표공항의 실태와 전략을 파악하고, 상호 비교를 통하여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 창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진행된 연구의 결과보고서. 동북아 물류중심지화를 위한 전략을 위해 새로운 점검과 상황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응방안 및 제2의 도약에 필요한 전력의 재정비를 위해 세계 항공운송산업의 현황과 동향을 파악하고, 주요국 항공정책 및 공항 발전전략을 검토하여, 인천공항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인천지역 한류관광 실태 및 대응정책 방안

인천발전연구원

통합적 지역관광정책의 관점에서 한류관광을 바라보고 인천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류관광 현상을 이해하고 체계적인 대응정책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진행된 연구의 결과보고서. 한류관광에 대한 개념을 검토하고 인천지역의 한류관광 현황 및 관련 정책 동향 및 중앙정부, 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정책 동향까지 파악하여 분석한 후 종합적인 대응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